

매니쉬(mannish)룩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을 통한 패션디자인 개발 연구

이지현 · 이술 · 노윤선*

동서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 패션디자인전공 박사수료
동서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 패션디자인전공 석사
동서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교수*

요약

복식은 성별 관념의 범주를 확정하고, 남녀성의 특징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성별문화에 관한 연구가 늘어나면서 의복의 성전환이 시도되고, 이러한 변화가 다양한 방법과 시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특히 60년대 여성은 성의 불평등에 대한 거부의 표시로 바지를 착용하였고, 이것이 70년대 여성에게 정당한 것이 되면서 셔츠, 바지, 스웨터 등의 중성화된 디자인으로 발전되어 도입되었다. 오늘날의 매니쉬(mannish)룩은 사회활동의 요구에 적합한 남성복의 요소를 여성복에 수용하고 다양한 측면의 여성정신을 디자인에 반영하며 변화되고 발전되어져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예술 사조를 도입하여 매니쉬룩을 포스트모더니즘의 접근을 통한 새로운 시각으로 디자인을 전개하여 현대 패션 산업에 부응하는 독창적 매니쉬룩을 모색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 1차 세계대전 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던 매니쉬룩은 90년대 말에 이르러 성이 해체된 복식으로써 독립적인 패션영역을 구축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인체 구조와 일반적 사고를 초월하여 디자인을 연구 할 수 있었고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인 남녀성의 구별이 사라지고 있는 현상이 패션디자인에 중요한 영향력이 된다는 것을 인식 할 수 있었다. 셋째, 매니쉬룩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을 통한 패션 디자인 사례 연구 결과 해체가 디자인 특성으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다양성, 차별성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특징인 해체, 아방가르드, 혼성모방을 통하여 새로운 소재와 색채, 구성방식을 사용하고 단일적인 형태를 벗어난 무한한 디자인개발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주제어: 매니쉬, 패션디자인, 포스트모더니즘

I. 서론

복식은 성별 관념의 범주를 확정하고, 남녀성의 특징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성별문화에 관한 연구가 늘어나면서 의복의 성전환이 시도되고, 이러한 변화가 다양한 방법과 시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1900년을 전후하여 활발해지기 시작한 여성의 사회진출은 여성복이 차츰 남성복화 되어가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여성의 복장이 남성적이며 활동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남성복 형태의 디자인 도입은 초반부에는 여성권리의 주장이 이유로 시작되었다. 여성운동은 페미니즘을 강조하며 남녀성의 평등을 주장하였고, 이는 현대 사회에서 독립, 자유, 평등과 사회발전을 구현하여 시대와 융합하는 형태를 보여주었다. 오늘날의 매니쉬(mannish)룩은 사회활동의 요구에 적합한 남성복의 요소를 여성복에 수용하고 다양한 측면의 여성정신을 디자인에 반영하며 변화되고 발전되어져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예술 사조를 도입하여 사물에 대한 고정적 인식을 탈피하고 자유로운 표현과 창조적 실험정신을 실천하여 보다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을 추구하고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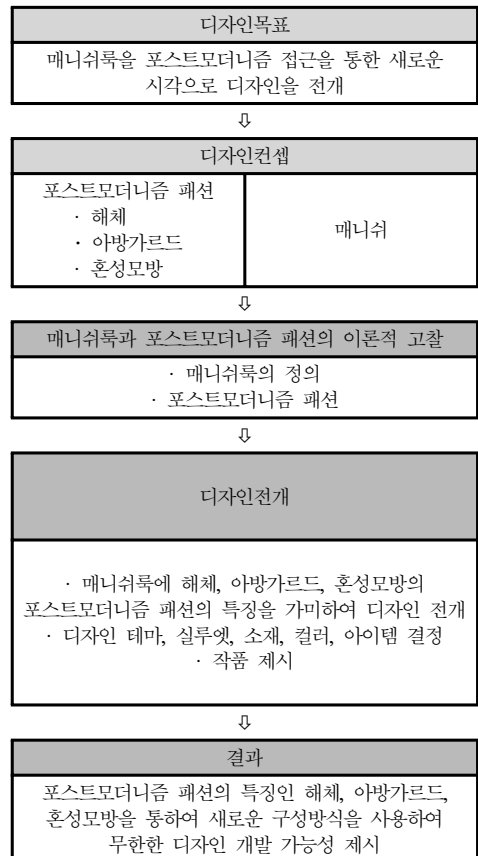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는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특징인 해체, 아방가르드, 혼성모방을 이용하여 매니쉬룩을 새로운 시각의 디자인으로 전개하여 현대 패션 산업에 부응하는 독창적인 매니쉬룩을 모색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디자인 전개방향은 <표 1>과 같다. 첫째, 매니쉬룩의 정의와 복식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둘째, 모더니즘의 연장이자 반항이라는 양면성을 가지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이것이 패션디자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셋째,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반영하고 디자인적 요소로 활용한 패션디자인의 사례를 살펴

보고 분석하였다. 넷째, 이를 토대로 기본 테일러드 재킷을 변형한 슈트형태의 작품 총 6점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디자인, 제안 하였다. 작품의 디자인은 포스트모더니즘에 나타나는 패션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인체 구조와 일반적 사고를 초월하여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특징인 해체, 아방가르드, 혼성모방을 토대로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단행본, 학위논문 등 문헌자료를 통하여 매니쉬룩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개발 작품을 전개하였다. 작품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독창적 모드, 재료, 색채와 함께 공존 할 수 있는 스타일의 결합으로 이성적 느낌을 변화시켜 감성적 디자인으로 제안하였다.

<표 1> 디자인작업 전개 흐름도



II. 이론적 고찰

1. 매니쉬룩(mannish-look)

1) 매니쉬룩의 정의

매니쉬(mannish)는 사전적 의미로 ‘남자 같은, 여자답지 않은’이라는 뜻으로 남성복 디자인을 여성복에 적용하여 여성다운 감각으로 표현한 스타일을 말한다.

19세기말부터 여성 패션에는 신사복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남성복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났다. 1,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인해 실용적인 목적으로 여성복이 남성복의 스타일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스포츠웨어에서 남, 여 복식이 유사해지는 등 조금씩 그 양상이 나타났으며 그 이후에는 남성적인 스타일의 여성복이 사회적인 공인을 얻어 하나의 패션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¹⁾

1930년대의 여배우 마를린 디트리히(Marlene Dietrich)의 팬탈롱 슈트(pantalon suit)는 매니쉬 스타일의 시초로 1975년 이후 유행한 쓰리 세트 슈트(three set suit), 1980년대의 남성복풍 등이 이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매니쉬룩은 바지와 재킷이 주를 이루고 타이, 셔츠 등을 입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90년대 패션에서 보이는 매니쉬룩은 단순한 남자 스타일이나 여성의 사회활동을 과시하기 위한 스타일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패션테마로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 매니쉬룩의 복식사적 배경

1914년에 시작된 제 1차 세계대전은 국민생활 전 분야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와 복식문화에 있어서도 그 모양과 착용방법 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여성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군수물자의 생산을 위해 여성들이 일을 하게 되자 그 복장은 자연스럽게 활동적이 되어 남성의 복장에 가깝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테

일러드 슈트(tailored suit)로 이는 원래 스포츠 복으로 착용하고 있었으나 전쟁으로 인하여 여성의 실용복으로서 일반화 되었다<그림 1>. 테일러드 슈트는 1차 세계대전 말기의 미국 적십자 여성의 유니폼으로 남성의 노포크 재킷(norfolk jacket)과 유사하여 허리에서 벨트를 묶고 속에 셔츠에 타이를 묶은 직선적인 실루엣의 디자인으로 표현되었다. 전쟁을 통하여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정치적 참정권을 획득하고 경제적으로도 직업을 가져 독립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자 1920년에서 1924년에는 가슴의 부풀음을 줄이고 허리곡선을 직선적인 실루엣으로 디자인한 보이쉬 스타일(boyish style)이 나타나게 되었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의복을 때와 장소에 맞게 구별하여 입는 것이 철저해지고 기능별로 세분화되어 운동종류에 따른 운동복, 운동 관람복 등으로 다양화 되었다<그림 2>. 30년대의 여성들은 골프웨어로 느슨한 남성적인 테일러드 바지를 입기 시작하였으며, 승마복으로 남자다운 트위드(tweed)나 트윌 해킹 재킷(twill hacking jacket)과 승마바지를 긴 부츠와 함께 착용하였으며, 당시의 최신 유행 휴양복으로 남, 녀가 같은 재단으로 된 재킷과 바지를 착용하였다.²⁾

1939년 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됨에 따라 여성



<그림 1>
테일러드 슈트, 1930년경
(출처: 『서양복식문화사』,
1981, p.346)



<그림 2>
사이클링복, 20세기초
(출처: 『20세기의 패션』,
2003, p.30)

복은 남성적이고 활동적인 스타일이 유행되어 대부분의 여성들은 바로 무릎 아랫길이의 실용적인 스커트와 어깨 폭이 넓은 재킷을 입었다<그림 3>.)

1960년대에는 과학의 발달과 대량생산체제에 따른 소비문화의 성장으로 베이비붐 세대에게 엄청난 경제권이 부여되면서 새로운 청년문화가 등장하게 되어 이 시기의 패션 경향은 완전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전기의 물질주의와 성공 지향적 가치에 대한 반작용으로 ‘히피’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히피(hippie)들의 의상과, 액세서리, 헤어스타일의 자유로운 코디네이션(coordination)은 비록 성에 따라 약간의 다른 기호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20세기 이후 처음으로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남녀의 구별 없이 사용되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림 3> 밀리터리 스타일의 여성복, 1940년경
(출처: 『서양복식문화사』, 1981, p.377)

1970년대에는 남녀 교육의 평준화로 인한 남녀 역할의 유사화와 증가하는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여성복에 팬츠슈트가 크게 유행하였다. 여성들은 이전까지의 남성중심의 환경 속에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하고자 새로운 경력을 쌓는데 주력하게 되어 옷에 신경을 쓸 시간이 적어지자 의식적으로

남성적 재단형태의 코트와 재킷을 착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테일러드 팬츠슈트(tailored pants suit)가 직장여성의 일반적인 의복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으며 다면적인 사회활동의 요구에 적합한 남성복식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매니쉬 감각을 표현하였다.

1980년대에는 현대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대와 생활영역의 확대로 패션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80년대의 패션은 대중이 획일적으로 따르던 시대에서 완전히 탈피하게 되었으며 다양화, 고급화, 개성화, 국제화의 추세를 따르게 되었다.⁴⁾

1990년대에 나타나는 매니쉬 스타일은 대립적인 개념을 절충적으로 동시에 수용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을 반영하여 성이 해체된 복식 속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90년대 패션에서 보여지는 매니쉬룩은 단순한 남성 스타일이나 여성의 사회활동을 과시하기위한 스타일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패션 테마로서 여러 디자이너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⁵⁾

2000년대는 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한 직업과 사회활동으로 생활양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현대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 차별성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남성복식의 요소를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 매니쉬룩은 개성있는 표현방법으로 남녀 성의 경계를 뛰어넘은 하나의 패션용어로 자리 잡고 있다.

2. 포스트모더니즘

1) 포스트모더니즘의 발생배경과 특징

포스트모더니즘은 ‘포스트(post)’와 ‘모더니즘(modernism)’이라는 용어의 결합으로 여기서 ‘포스트’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이후’라는 뜻과 ‘벗어남’, ‘초월’이라는 뜻이 있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이란 탈근대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더니

즘 이후에 나타난 비판현상을 말한다⁶⁾.

포스트모더니즘은 역사적으로 제 2차 세계대전 후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예술사조이다. 이는 모더니즘의 연장이자 반동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러 건축, 음악, 미술, 패션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 기능, 효율, 합리성만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거부, 다원성, 절충성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모더니즘의 도덕적인 심각함은 패러디, 냉소주의, 상업주의, 유희성, 허무주의로 대체되며, 대중주의적 포스트모더니즘은 절충주의(온갖 형식, 장르, 옛 것, 새로운 것)에 있는 그대로의 세계 속에서의 즐거움의 추구, 미학적 스타일, 다원주의 속에서 공존을 지향한다. 제랄드 그라프(Gerald Graff)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낭만주의와 모더니즘의 주요한 특징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두 운동의 출발 점이된 전제들을 그 자신(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논리적 정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⁷⁾라고 설명한다.

포스트모더니즘 개념에 관한 논의의 다양성과 중복성을 인정하면서도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이론가들의 견해를 살펴볼 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모더니즘의 승계 또는 극단적인 발전 형태로 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모더니즘으로부터의 단절 즉, 탈 모더니즘적 입장으로 보는 것이다. 포괄적인 개념의 명칭으로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적이며 절충주의적인 전략적 입장에서 보면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관계를 단순히 승계발전이나 단절로 규정지을 수는 없으며 찰스 젠크스(Charles Jencks)는 포스트모더니즘도 모더니즘처럼 그 동기와 시간이라는 틀 가운데에서 각 예술에 따라 다양하다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건축이 일반대중과 그리고 보통 다른 건

축가들, 이른바 관련 소수집단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현대적인 기술과 다른 것과의 결합을 의미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본질적으로 모더니즘의 지속과 모더니즘의 초월이라는 이중구조를 갖는다.”라고 말하고, “이 이중의 의미구조는 단순히 엘리트와 대중,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⁸⁾ 이는 찰스 젠크스의 정의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이 이중적인 양면성의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포스트모더니즘 패션

패션에 있어서 포스트모더니즘은 경제력을 과시하는 패션(fashion for standard symbol)이 아니라 입는 사람 자신의 생활을 즐겁게 해주는 패션,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상시화 되어있던 스타일의 근본을 바꾸는 패션정신을 의미한다. 포스트모던 디자인은 형태는 물론 색상까지 대담하게 유희감을 집어넣는 특성을 지니고, 나아가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을 자유롭게 혼합하여 합리성 일변도의 모더니즘 시대와는 다른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⁹⁾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은 기존의 형식을 파괴하는 미학으로 과거와 현대의 양식을 자유롭게 믹스시켜 나가고 있으며, 기존의 것을 해체하여 새로운 방식의 것을 표현한다거나, 종전의 가치관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가치관과 결합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표현한다거나, 옛 것을 재순환시키고 혼성 모방하는 것을 응용하며 수용해나가고 있다. 본 장에서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복식의 조형에 있어서의 특징을 크게 해체(deconstruction), 아방가르드(avant-garde), 혼성모방(pastiche)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해체

패션에서 볼 수 있는 의복의 구조적 해체는 1980년대 초 레이 가와쿠보(Rai Kawakubo)의 작품에서 비롯되었으나 처음 소개되었을 때는 사람들

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에 발표된 해체패션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해체주의라는 용어는 1989년 『Details』라는 잡지에서 빌 커닝햄(Bill Cunningham)이 처음 다루었다.

레이 가와쿠보와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 등은 명백한 파괴 즉, 의상을 만들고 의류를 찢고 의도적으로 흠을 내는 등의 기법으로 패션에 새로운 울을 불어넣었고, 형식 자체를 파괴하는데서 숭고미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전반의 소품중 대량생산의 물 개성화된 형태에서 타인과 다른 새로운 자신의 모습 즉, 개성표현을 존중하는 형태의 옷을 대중들이 원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단순한 개성표현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의 체제를 거부하고 지금까지의 패션형태를 거부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¹⁰⁾ 표현기법으로는 의복의 부분적 확대 및 길이 연장, 착장순서 파괴 및 목적이 다른 복종을 혼용, 의복의 부분 삭제 등이 있으며 불확정성과 탈 중심성 등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2)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 패션은 다른 구성원들과는 구별되는 특이한 복식으로 자신들의 그룹특성을 시각화하여 그룹의 다양한 요소를 상징으로 표출하는 스타일이다. 아방가르드 패션은 가치관, 신조, 주된 관심뿐만 아니라 외모를 통해 규범이나 가치에 항거를 표현하므로 기존의 기준에서 봤을 때 다소 탈선적이고 풍자적이고 고발적¹¹⁾이기도 하다. 표현기법으로는 레이어드(layered), 패치워크(patchwork), 찢기(rip), 페인팅(painting), 수공예 기법(handicraft techniques) 등이 있으며 과장된 표현과 탈선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테드 폴헤머스(Ted Polhemus)와 린 프록터(Lynn Procter)에 따르면 반(反)패션은 ‘패션 체계 또는 패션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든 스타일’을 지칭한다. 반(反)패션은 획일화된 패션을 거부하며 개

성과 자유를 추구하고, 새로운 디자인 창조에 영감을 불러일으켰으며, 거대한 물질문명의 현대사회 구조의식을 고발하고 인간성 회복의 진정한 자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물질문명의 고발과 인간성 회복의 진정한 자아의 표현으로 획일화된 패션을 거부하며 개성과 자유를 추구하는 귀족들, 예술가들, 자신의 드레스 모드로 뽐낼 수 있는 의식 있는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반(反)패션은 전개되었으며 예술에서의 모더니즘과 의상에 있어서의 반(反)패션은 부르주아(bourgeois) 문화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동일한 내적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었다.

(3) 혼성모방

혼성모방은 특정한, 혹은 독특한 스타일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다. 패러디(parody)에 존재하는 숨어있는 동기나 풍자적 충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즉, 혼성모방은 원본을 상실한 복제품이며, 무의미하고 공허한 이미지들의 혼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잘 알려진 예술작품이나 모티브(motiv), 스타일(style), 이미지(image), 테크닉(technic) 등을 모방하고 편집하여 재조합한 예술작품이나 창작 기법의 하나이다.¹²⁾

혼성모방은 패러디와 혼동되는 경향이 있다. 패러디는 본질에 대한 은밀한 공감을 가져야 되고 현대 사회 전반적인 생활의 심층적이고 일반적인 경향을 예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런 개별적이고 특이한 스타일을 조롱할 수 있는 규범의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 단지 스타일상의 다양함과 이질성만이 남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패러디가 불가능하게 되고 혼성모방이 등장하게 된다. 혼성모방은 공허한 패러디이며, 유머감각마저 상실한 패러디이다.¹³⁾ 표현기법으로는 예술작품, 종교적 상징, 하위문화 스타일, 역사적·민속적 이미지를 차용하며, 역사적·지역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표 2> 포스트모더니즘에 나타난 패션디자인의 특성

포스트 모더니즘 패션	표현기법 및 이미지	특징
해체	의복의 부분적 확대 및 길이 연장, 착장순서 파괴 및 목적이 다른 복종을 혼용, 의복의 부분 삭제 등	불확정성 탈중심성 상호텍스트성
아방가르드	레이어드, 패치워크, 찢기, 페인팅, 프린징, 수공예기법 등	탈선적, 풍자적, 고발적
혼성모방	예술작품, 종교적 상징, 하위문화 스타일, 역사작민속적 이미지 차용	역사적 이미지 지역적 이미지

3) 매니쉬룩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을 통한 패션 디자인 사례 연구

본 장에서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을 통한 매니쉬룩의 패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최근 5년간의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작품 중에서 매니쉬룩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의상이 가장 잘 나타난 알렉산더 왕(Alexander Wang), 콤므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 가레스 퓨(Gareth Pugh),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Maison Martin Margiela),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의 작품을 해체, 아방가르드, 혼성모방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1) 해체

<그림 4>는 매니쉬한 디자인의 블랙코트에 레이스 장식이 덧대어져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소재의 이질적인 결합과 부조화적 디자인으로 목적이 다른 복종을 혼용하여 표현함으로써 획일화된 패션을 거부하며 개성과 자유를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특징인 해체를 나타내고 있다. 남성복의 특징인 박시한 실루엣이 코트에 적용되어 매니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는 재킷을 해체하여 칼라와 어깨부분을 과장되게 디자인하였다. 어깨부분을 강조함으로써 남성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여성복 패션의 특징이었던 실루엣을 강조한다거나

화려한 색상으로 여성미를 강조하는 것과는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매니쉬한 디자인의 재킷에 핑크컬러 타이즈와 부츠를 매치하여 재킷과는 상반되는 실루엣으로 표현하였다. 재킷은 해체의 표현기법 중 하나인 의복을 부분적으로 확대하거나 과장하는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6>은 여성스러운 디테일의 블랙 레이스와 마치 재킷의 앞면을 붙여 넣은 것 같은 매니쉬한 디테일의 조화가 여성스러운 소재와 남성적인 느낌의 디테일과의 이질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해체의 표현기법 중 의복을 부분적으로 삭제하거나 덧붙이는 방법으로 나타내고 있다. 현대 패션에서는 남성복식의 전유물이었던 재킷의 디자인을 근거로 하여 여러 가지 디자인을 변형, 해체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매니쉬룩이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복 디자인을 여성다운 감각으로 발전시켜 보다 다양한 증성적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2) 아방가르드

<그림 7>은 마치 끈으로 엮은 듯한 수공예적 느낌의 그레이컬러 상의에 레이스업 디테일의 레그워머를 매치하여 상의는 느슨하면서도 하의는 조이는 듯한 느낌의 스타일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적 아방가르드 패션을 나타내고 있다. 새를 형상화 한 것 같은 장신구로 얼굴을 덮어 전체적으로 반항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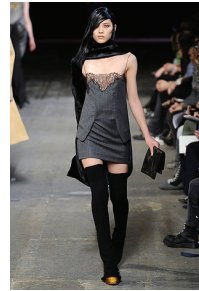
전체적인 이미지에서 엿볼 수 있듯이 기존의



<그림 4> 폴므 데 가르송,
2008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5> 마틴 마르지엘라,
2007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6> 알렉산더 왕,
2010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7> 가레스 류,
2010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여성복에서 표현되었던 여성적인 느낌과는 달리 그로테스크 적어지면서도 어두운 이미지가 매니쉬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8>은 피트되는 블랙 원피스에 매니쉬한 프린팅 디테일의 재킷을 매치하여 모더니즘 패션의 아방가르드를 표현하고 있다. 프린팅 장식의 끝부분이 거칠게 처리되어 탈선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9>는 축구공을 연상케 하는 육각모양으로 커팅 되어있는 모티브들을 패치워크하여 저항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과장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이 풍자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모티브들은 여성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있으며 모티브의 요소에 남성스러운 이미지와 하드

한 소재를 사용하여 강인한 남성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3) 혼성모방

<그림 10>은 다채로운 색감의 에스닉한 스타일의 점퍼수트로 민속적인 느낌을 나타내고 있으며 매니쉬한 디자인의 블랙컬러 재킷과 토속적인 느낌의 헤어스타일, 슈즈로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특징인 혼성모방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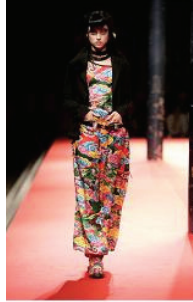
<그림 11>은 카무플라주(camouflage) 무늬의 박시(boxy) 실루엣의 재킷, 타이트한 티셔츠와 팬츠로 전체적인 패션을 통일하여 남성스러운 밀리터리 룩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밀리터리 이미지의 차용으로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혼성모방을 보여주



<그림 8>
가레스 류,
2008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9>
폴므 데 가르송,
2009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0>
요지 야마모토,
2008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1>
장 폴 고티에,
2007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2>
비비안 웨스트우드,
2008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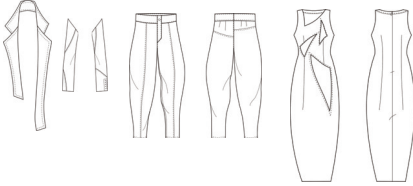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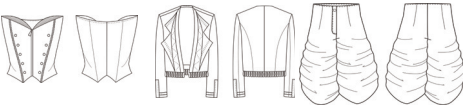

<그림 12>는 매니쉬한 더블 브레스트 재킷(double breasted jacket)의 루즈(loose)한 실루엣과 꽃모양의 코르사주(corsage)장식이 토속적인 느낌의 메이크업과 어우러져 민속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III. 작품 제작

1. 작품 제작의도 및 방법

1900년을 전후하여 활발해지기 시작한 여성의 사회진출로 나타나기 시작한 남성복 형태의 디자

<표 3> 작품 제작 계획표

작품	아이템	컬러	소재	도식화	스위치	표현기법	디자인 컨셉
I	셔츠 (shirt), 재킷 (jacket), 팬츠 (pants)	블랙 (black), 화이트 (white)	울(wool), 쉬폰 (chiffon)			의복의 부분적 확대	해체
II	재킷 (jacket), 팬츠 (pants), 원피스 (onepiece)	블랙 (black), 블루 (blue)	울(wool), 쉬폰 (chiffon)			의복의 부분삭제, 불규칙적 구조변경	해체
III	탑(top), 재킷 (jacket), 팬츠 (pants)	블랙 (black), 블루 (blue), 핑크 (pink)	울(wool), 쉬폰 (chiffon)			프린팅 (fringing), 패치워크	아방 가르드
IV	블라우스 (blouse), 팬츠 (pants), 재킷 (jacket), 스커트 (skirt)	블랙 (black), 그레이 (grey), 블루 (blue)	울 (wool), 면 (cotton) 쉬폰 (chiffon), 깃털 (feather)			프린팅 (fringing), 레이어드 (layered)	아방 가르드
V	재킷 (jacket), 셔츠 (shirt), 팬츠 (pants)	블랙 (black), 그레이 (grey), 레드(red), 블루 (blue)	울 (wool), 레이스 (lace)			플리즈 (pleats), 레이어드 (layered)	혼성모 방
VI	코르셋 (corset), 재킷 (jacket), 스커트 (skirt)	블랙 (black), 그레이 (grey), 핑크 (pink)	울 (wool), 쉬폰 (chiffon), 면 (cotton)			드로 스트링 (drawstring), 드레이프 (drape)	혼성모 방



<그림 13> 작품 I



<그림 14> 작품 II



<그림 15> 작품 III

인 도입은 성의 불평등에 대한 거부의 표시로 바지를 착용한 것이 정당화되면서 중성화된 디자인으로 발전되어 도입되었다. 오늘날의 매니쉬룩은 사회활동의 요구에 적합한 남성복의 요소를 여성복에 수용하고 다양한 측면의 여성정신을 디자인에 반영하며 변화되고 발전되어져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페미니즘(feminism)의 일반으로 보여졌던 매니쉬룩을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특징인 해체, 아방가르드, 혼성모방의 접근을 통한 새로운 시각으로 디자인을 전개하여 현대 패션 산업에 부응하는 독창적 매니쉬룩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질적 소재에서 오는 부조화와 남성적 느낌의 울 소재, 여성적 느낌의 쉬폰 소재를 사용하여 획일화된 패션을 거부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을 나타내하고자 하였다. 작품은 슈트 형태로 총 6점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디자인을 제안하였고 <표 3>에서 제시한 작품제작 계획표를 토대로 포스트모더니즘의 독창적 모드, 재료, 색채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스타일의 결합으로 이성적 느낌을 변화시켜 감성적 디자인으로 제안하였다.

1) 작품 I

- (1) 아이템: 셔츠, 재킷, 팬츠
- (2) 컬러: 블랙, 화이트
- (3) 소재: 울, 쉬폰
- (4) 디자인 특징: 해체

(5) 작품설명: 재킷은 기본 테일러드 재킷을 변형한 스타일로 칼라부분을 비대칭적으로 디자인하였고 허리선 아랫부분을 두 겹으로 디자인하여 마치 두 벌의 재킷을 입은듯하게 표현하였다. 재킷의 햄라인(hemline)은 주름장식으로 나타내었다.

이는 획일화된 패션을 거부하며 구조의 변경을 통한 파괴와 삭제를 이용하여 형태와 밸런스를 파괴한 것으로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해체를 표현하고 있다.

팬츠는 루즈한 실루엣의 7부길이로 디자인하였으며 아랫단에는 쉬폰소재의 스트랩을 리본으로 묶는 형식으로 마무리하였다. 셔츠는 길이가 짧은 스타일의 사선 형의 비대칭으로 디자인하였고 네 크라인부분의 한쪽을 포인트로 두 겹 플레이 되게 표현하였으며, 칼라 가장자리는 쉬폰 소재로 바이어스 처리하였다.

2) 작품 II

- (1) 아이템 재킷, 팬츠, 원피스
- (2) 컬러: 블랙, 블루
- (3) 소재: 울, 쉬폰
- (4) 디자인 특징: 해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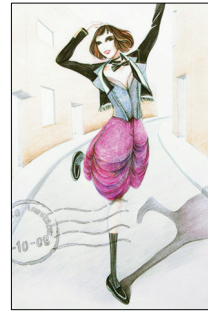
(5) 작품설명: 구조의 변경과 삭제를 이용하여 재킷을 해체하였으며 소매가 없는 디자인의 블랙 컬러 재킷을 디자인하였다. 팬츠는 루즈한 실루엣의 배기팬츠(baggy pants) 스타일로 표현하였다. 비



<그림 16> 작품 IV



<그림 17> 작품 V



<그림 18> 작품 VI

치는 쉬폰 소재의 롱 원피스는 불규칙적인 구조로 변형하여 팬츠위에 덧입는 형식의 웨어링(wearing)의 파괴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매니쉬한 느낌을 주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을 가미하고자 울 소재와 쉬폰 소재를 결합하였다.

3) 작품 III

(1) 아이템: 탑, 재킷, 팬츠

(2) 컬러: 블랙, 블루, 핑크

(3) 소재: 울, 쉬폰

(4) 디자인 특징: 아방가르드

(5) 작품설명: 재킷의 아랫단에는 테일러드 재킷을 겹쳐 입은 듯 하게 덧대어 입체감을 느낄 수 있게 디자인하였고, 앞면 중심부에는 패치워크를 시도하였다. 소매 아랫부분은 주름을 접어 디자인하였으며 윗부분에는 단추로 연결시켜 장식효과를 높였다. 어깨부분에는 시스루(see-through) 소재의 장식을 붙여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재킷에 여성스러운 디테일을 첨가하고자 하였다. 탑은 핑크 쉬폰 소재를 사용하였고 팬츠는 7부 길이로 디자인하였다. 바지 아랫부분은 끈을 연결하여 밑으로 늘어뜨려 아방가르드한 요소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4) 작품 IV

(1) 아이템: 블라우스, 팬츠, 재킷, 스커트

(2) 컬러: 블랙, 그레이, 블루

(3) 소재: 울, 면, 쉬폰, 깃털

(4) 디자인 특징: 아방가르드

(5) 작품설명: 재킷은 소매가 없는 형태이며 스커트는 루즈한 실루엣으로 마치 종이를 접어놓은 듯하게 겹겹이 겹쳐지게 디자인 하였다. 블라우스의 소매부분은 프린팅 장식을 넣어 끈을 소매보다 길게 늘어뜨렸다. 팬츠는 배기팬츠 스타일의 빛바랜 데님(denim)으로 디자인하여 아랫부분으로 내려갈수록 폭이 좁게 표현하였다. 팬츠에 울 소재의 스커트를 덧입는 방식으로 레이어드 하였으며 기존의 스커트 형태에 앞부분의 디테일을 가미하여 과장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네크라인에는 깃털의 코사주로 스타일링하여 과장된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프린팅 디테일, 빛바랜 데님 팬츠와 스커트의 레이어드로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아방가르드를 나타내었다.

5) 작품 V

(1) 아이템: 재킷, 셔츠, 팬츠

(2) 컬러: 블랙, 그레이, 레드, 블루

(3) 소재: 울, 레이스

(4) 디자인 특징: 혼성모방

(5) 작품설명: 재킷의 어깨부분은 넓은 칼라로 디자인하였고 밑단과 왼쪽 어깨부분에는 레이스를 덧붙여서 나타내었다. 이너웨어로는 검정색의 셔츠를 재킷과 같은 소재를 사용하여 표현하였고 팬

츠는 루즈한 핏의 5부 길이로 디자인하고 왼쪽에는 스트라이프 무늬의 울 소재를 덧붙여 장식하였다. 넥라인에는 플리츠로 된 액세서리를 더하였다. 이는 빅토리아 시대의 디테일을 가져온 것으로 역사적 이미지 차용으로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혼성모방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재킷 디자인의 변형과 팬츠에 디테일을 가미하여 단순한 남성복의 모방이 아니라 기본 디자인의 변형을 통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6) 작품 VI

- (1) 아이템: 코르셋, 재킷, 스커트
- (2) 컬러: 블랙, 화이트, 그레이, 핑크
- (3) 소재: 울, 쉬폰, 면
- (4) 디자인 특징: 혼성모방

(5) 작품설명: 남성적인 느낌의 블랙 재킷은 스포츠스타일로 디자인하였고 칼라의 가장자리는 쉬폰 소재로 표현하여 소재의 이질감에서 오는 부조화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회색 울 소재 코르셋의 가슴라인 부분을 쉬폰 소재로 덧대어 남성형태의 재킷과는 반대되는 여성스러운 느낌을 나타내었다.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혼성모방을 나타낸 것으로 여성스러운 소재와 남성스러운 디자인의 매치로 매니쉬룩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울 소재의 스커트는 옆선에 드로스트링(drawstring) 장식을 넣어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디자인하여 드레이프를 잡아 로코코 시대의 디자인 양식을 살려 혼성양식의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IV. 결론

오늘날의 매니쉬룩은 패션경향의 하나로서 사회활동의 요구에 적합한 남성복의 요소를 여성복에 수용하고 다양한 측면의 여성 정신을 디자인에 반영하며 변화되고 발전되어져 왔다. 이러한 관점

에서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해체, 아방가르드, 혼성모방의 특징을 도입하여 사물에 대한 고전적 인식을 탈피하고 자유로운 표현과 창조적 실험정신을 실천하여 보다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을 추구하고 그 가능성을 탐색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디자인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식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매니쉬룩에 나타나는 배경을 이해하고 그것이 현대사회 여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매니쉬룩의 발전을 도모하여 시대요구의 변화에 적응하고 다양한 표현과 응용으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구현하고 중성적인 실루엣에서 여성적인 곡선을 찾아 묘사 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포스트모더니즘에 나타나는 특징의 고찰을 통하여 인체구조와 일반적 사고를 초월하여 디자인을 연구 할 수 있었고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인 남녀성의 구별이 사라지고 있는 현상이 패션디자인에 중요한 영향력이 된다는 것을 인식 할 수 있었다.

셋째, 매니쉬룩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을 통한 패션 디자인 사례 연구 결과 본 논문에서는 해체, 아방가르드, 혼성모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검색 결과 해체가 디자인 특성으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다양성, 차별성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특징인 해체, 아방가르드, 혼성모방을 통하여 새로운 소재와 색채, 구성방식을 사용하고 단일적인 형태를 벗어난 무한한 디자인개발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복식 상에 나타나는 매니쉬룩과 포스트모더니즘적 패션디자인 특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매니쉬룩이 포스트모더니즘의 흐름 속에 융화되어 새로운 형식과 미를 창조해 냄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의 성역할의 변화와 사회의 다원적 발전으로 여성복의 남성화 및 디자인적 융합을 통하여 여성복의 재인식과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박연주 (1995). 매니쉬룩(Manish Look)의 해체주의적 접근을 통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8.
- 2) David Bond (1992). 20세기 패션, 정현숙 옮김 (2000). 서울: 경춘사, p.100.
- 3) 위의 책, p.124.
- 4) 조규화 (1985). 선진국의 패션 및 패션산업, 서울: 한국섬유산업연합회, p.12.
- 5) 박연주. 앞의 책, p.18.
- 6) 김혜경 (2007). 패션트렌드와 이미지, 서울: 교문사, p.148.
- 7) 정정호, 강내희 (1996). 포스트모더니즘론, 서울: 문화과학사, p.65.
- 8) 정시화 (1998). 산업디자인 150년, 서울: 미진사, p.267.
- 9) 강죽형 (2005). 포스트모더니즘과 코스모폴리타니즘 패션 경향에 관한 고찰,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5(2), p.37.
- 10) 정현숙 (1995).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8.
- 11) 간문자 (1992). 저항패션이 모패션으로 전이된 현상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9.
- 12) 김하정 (2000). 현대 패션의 창조적 디자인의 한계성에 관한 연구: 1990년대 후반부터 패션에 나타난 혼성 모방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 13) 정현숙. 앞의 책, p.42.

A Study on Fashion Design Development through a Postmodernistic Approach to the Mannish Look

Lee, Ji Hyun · Lee, Xu · Roh, Youn Sun⁺

Ph.D. candidate, Dept. of Fashion Design, Graduate School of Design, Dongseo University

Master, Dept. of Fashion Design, Graduate School of Design, Dongseo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seo University⁺

Abstract

Fashion confirms the idea of gender boundary, and plays the role of expressing features of each gender. Sex change in fashion has been attempted as the number of researches on gender culture has increased, and such changes are expressed through various methods and visuals. In the 1960s, women especially wore pants as a symbol of rejecting sexual inequality, and this was developed and introduced as a neutralized design as it became reasonable and natural for women to wear pants in the 70s. As elements of male clothing have been accepted by women, the mannish look has changed and developed as the feminine spirit has been reflected to designs. Artistic postmodern ways of thinking were introduced and original design developments have been pursued by practicing a creative and experimental spirit.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eek an original mannish look that satisfies the demands of the contemporary fashion industry by unfolding designs from a new viewpoint through a postmodern approach.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background of the mannish look and the significance of the look for women today were understood through an examination of fashion history. Second, it was recognized that the phenomenon of disappearing gender distinction and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ism are important influences on fashion design. Third, the infinite possibilities of design development using new materials, colors and composition methods through a postmodern approach was confirmed.

Key words: mannish, fashion design, postmodernism